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류 준 경*

차 례

- | | |
|---------------------------------|----------------------------------|
| 1. 서 론 | 3. 白山黑水文庫 소재 중국번역소설과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 |
| 2. 규장각본 <슈상요화전>, <충렬소오의>, <진류탑> | 4. 19세기말 중국소설번역의 소설사적 의미 |
| | 5. 결 론 |

1. 서 론

낙선재본 중국번역 소설은 낙선재본 소설의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낙선재에 존재하는 한글소설이 우리의 창작소설인지, 중국소설의 번역(번안)인지 하는 문제는 낙선재본 소설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소설원본을 찾아서 비교하거나, 국적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¹⁾ 또한 근래에 들어 박재연 교수가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에 대한 계속적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

1) 조희용,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1973

이혜순, 한국고대번역소설연구서설, 『장덕순선생화갑기념논문집』, 1981

정규복, 제일기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집, 고려대, 1984

이상택, 조선조대하소설의 작가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집, 한국고전문

인 연구를 통해 국적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라 여겨진다.²⁾

하지만 중국소설이 언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그리고 중국소설의 번역이 우리의 소설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다만 연의류의 경우 그 향유 기록 등이 단편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어, 중국소설의 수용과 향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다른 중국 번역소설의 경우 향유나 번역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은 필사기초차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수집종에 달하는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에 대한 번역시기와 번역상황 등에 관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³⁾

그런데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에 관해서는 가람 이병기가 그의 『국문학전사』에서 최초로 언급한 바 있어 주목을 요한다.

高宗二十一年을 전후하여 文士 李鍾泰라는 이가 皇帝의 命을 받아 문사 수십명을 동원하여 오랫동안 中國小說을 번역한 것이 近百種에 가까웠고, 또 昌德宮 안에 있는 樂善齋(王妃의 圖書室)에는 한글로 된 書籍이 지금 四千餘冊이나 있는바 그 중에는 翻譯小說이 대부분이고 더러는 國文學의 귀중본도 끼어 있었다.⁴⁾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람은 중국소설의 번역에 관해 황실의 지원 아래에서 이종태를 비롯한 문사 수십인이 1884년을 전후하여 오랫동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여 중국소설의 번역과정과 번역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이는 비록 구체적인 증빙근거가 제시되지 않지만, 결코 허술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진술이라 하겠다.

학연구회, 1986

김진세, 낙선재본 소설의 국적문제,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심경호, 조선후기소설고종(1), 『한국학보』 56집, 일지사, 1989

- 2) 박재연, 韓國所見中國通俗小說翻譯本目錄, 『中國小說研究會報』 7호, 중국소설연구회, 1991.

_____, 규장각본 型世言(1~2), 『중국소설연구회보』 10~11호, 1992.

_____,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박사논문, 1993.

- 3) 다만 <武穆王精忠錄>의 필사기와 <무목왕정충록>, <孫龐演義>에 찍힌 啜娘 李氏(?-1763)의 印章 등을 통해 그 필사시기를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이다.(박재연, 『무목왕정충록』 해제, 중국소설·회국 번역자료 총서 5 『무목왕정충록』, 학고방, 1996 참조)

- 4) 이병기·백철 공저,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2.182 참조

이러한 가람의 진술에 근거하여 박재연 교수는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의 고어와 고문체의 빈도와 용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 총 36종 중 15종의 작품을 이종태 등의 문사가 번역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에 관한 다른 기록이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번역소설에 나오는 고어나 고문체 등을 통하여 그 연대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가람의 언급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고어나 고문체를 통한 연대추정의 경우, 최소한 100년 정도의 오차는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쉽사리 지금 낙선재문고에 남아 있는 15종의 작품이 이종태 등이 번역한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84년을 전후하여 황실의 후원으로 중국소설을 번역했다는 사실은 그 무렵에 중국번역소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미 가까운 시기에 최소한 몇 작품 정도는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소설의 번역이 이루어져왔던 상황을 고려할 때 15종의 작품을 이종태 등의 문사가 번역했다고 쉽사리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의 초고본으로 추정되고 있는⁵⁾ 규장각 소장 중국번역소설 3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滅失되고 그 목록만 남아 있는 日本東京大學校 白山黒水文庫에 소장되었던 한글 필사본 중국소설번역본의 서지사항을 참조하여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의 번역시기와 번역상황 등을 고구하여 19세기말에 번역된 낙선재본 소설이 무엇인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고구를 바탕으로 중국소설의 번역이 우리 소설사에서 가지는 위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2. 규장각본 〈슈상요화전〉, 〈충렬소오의〉, 〈진주탑〉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번역소설 중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그 내

-
- 5) 사실 가람의 언급 역시 “고종이십일년 전후”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박재연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규장각소장 한글필사본 2종(〈요화전〉과 〈진주탑〉)이 낙선재본 동일 작품의 초고본의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박재연,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1993 참조)

용은 물론 자구까지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작품이 3종이 있다. 이들 작품은 그 책 수에 있어서 낙선재본과 차이가 있기에 목록 상으로는 동일한 내용임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조해 보면 자구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낙선재본과는 달리 규장각본의 경우 부분적으로 가필·수정한 흔적이 있는데, 그 가필·수정된 부분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많아야 한 면에 한 두 번 정도이고, 조사나 어미 등을 조금 수정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규장각본의 가필·수정된 내용이 낙선재본에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둘 사이의 관계는 주목을 요한다. 먼저 각각의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2.1 슈상요화전

<繡像瑤華傳>은 42회의 회장체 소설로, 잘못된 방법으로 신선이 되고자 한 숫여우가 요화라는 이름의 인간으로 환생하여 국가에 많은 공을 세우며, 또한 수도생활을 통하여 신선이 된다는 내용의 '神魔小說'이다. 작자는 청나라의 丁秉仁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刊本으로는 중국 鄭州大學圖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는 道光18년(1838) 濤音書屋本과 首都圖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는 道光25년(1845) 慎修堂刊本 등 2종이 전해지고 있다.⁷⁾ 이중 도광 18년 濤音書屋本은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다.⁸⁾

규장각소장 濤音書屋本과 한글필사본 슈상요화전, 낙선재본 요화전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繡像瑤華傳, 丁秉仁(淸) 編, [木] 濤音書屋藏, 道光 18년(1838) 卷首, 11卷, 合12冊. 圖. [木] 17.6×12cm. 版心書名:瑤華傳. 序:嘉慶 8年(1803) … 丁秉仁. 跋:嘉慶 10年(1805) … 周永保. 印: [集玉齋·帝室圖書之章].⁹⁾

슈상요화전, 奎 11472, [編者未詳, 年紀未詳], 14卷 7冊. [寫] 33.5×19cm.

7) 『중국통속소설총목제요』, 中國文聯出版公社, 北京, 1990, p.590.

曹中孚, 前言, 『古本小說集成』 252(瑤華傳), 上海古籍出版社, 1990, pp.1-2

8) 박재연 교수는 한글 필사본 <요화전>의 번역 대본을 규장각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재연, 앞의 논문, p.319 참조)

9) 『규장각도서중국본총목록』, 서울대 도서관, 1972. p.333

筆寫面：28×16cm, 9行 20字 内外. 表題：瑤華傳. * 國文本¹⁰⁾

요화전, 寫本(國文). 22책, 27.8×19cm. 別名：瑤華傳. 原本所藏：韓國精神文化研究院(舊 藏書閣本). 4-6835.¹¹⁾

이 세 종의 장회와 권, 책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규장각소장 중국본	규장각본	낙선재본
권수(서문 및 도판), 1책		권1(1-2회), 1책
권1(1-4회), 2책	권1(1-4회)	권2(3회), 2책
권2(5-8회), 3책	권2(5-8회), 1책	권3(4-6회), 3책
권3(9-12회), 4책	권3(9-11회)	권4(7-8회), 4책
권4(13-16회), 5책	권4(12-14회), 2책	권5(9-10회), 5책
권5(17-20회), 6책	권5(15-17회)	권6(11-12회), 6책
권6(21-24회), 7책	권6(18-20회), 3책	권7(13-14회), 7책
권7(25-28회), 8책	권7(21-23회)	권8(15-16회), 8책
권8(29-32회), 9책	권8(24-26회), 4책	권9(17-18회), 9책
권9(33-36회), 10책	권9(27-29회)	권10(19-20회), 10책
권10(37-40회), 11책	권10(30-32회), 5책	권11(21-22회), 11책
권11(41-42회), 12책	권11(33-35회)	권12(23-24회), 12책
	권12(36-37회), 6책	권13(25-26회), 13책
	권13(38-39회)	권14(27회), 14책
	권14(40-42회), 7책	권15(28-29회), 15책
		권16(30-31회), 16책
		권17(32-33회), 17책
		권18(34-35회), 18책
		권19(36-37회), 19책
		권20(38회), 20책
		권21(39-40회), 21책
		권22(41-42회), 22책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중국 간행본에서 규장각본, 낙선재본으로 갈수록

10) 이 서지사항은 규장각에서 규장각소장 어문학자료의 문헌학적 정리 사업에서 작성된 것으로, 아직 간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인용되는 규장각 소장 자료의 서지사항 역시 이를 참고 하였다.

11) 『한국고소설목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60

권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권이나 책 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어떤 규칙을 찾을 수는 없어 보인다. 이는 곧 중국소설의 번역에 있어서 권이나 책 수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번역본의 책 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낙선재본이 규장각본의 거의 3배에 이른다.

중국본과 낙선재본의 경우는 장회가 바뀌어도 면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 쓰고 있으나, 규장각본의 경우 1권에서 2회와 3회, 3회와 4회, 2권에서 5회와 6회, 6회와 7회 사이에서는 면을 바꾸어 쓰고, 다른 곳에서 회가 바뀔 때에는 낙선재본과 같이 면을 바꾸지 않고 이어서 쓰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규장각본이 낙선재본에 비해 덜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은 번역본의 초고인 듯 부분적으로 지우거나 수정한 부분이 보이는데 낙선재본 한글 필사본에는 규장각본의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규장각본의 1-3면 사이에 나타나는 수정부분을 살펴보자.

- 슈상요화전 → 요화전 (1면)¹²⁾
- 보미 문득 → 보고 → 보와 (2면)
- 흥논 재 잇서 → 흥논 재 이시니(2면)
- 익이 저즌 가운데 잇서 경영흥논 사름이야 즈못 능히 변호여 → 익이 저즌 가운데서 열인흥 사름이야 능히 분변호여(2-3면)
- 다만 능히 췌쳐 → 다만 능히 타인의게 췌쳐(3면)
- 췌호 가히 뼈 → 췌 능히(3면)

이와 같은 규장각본의 수정부분이 낙선재본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부분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1-3면 사이의 수정부분은 다른 면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편이며, 이후에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수정된 면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수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나 어미를 바꾸는 수준 이상은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쉽게 하거나, 문장을 원활히 하는 정도에 그치

12) 卷首題 부분이다. ‘繡像’은 중국소설 원본의 권수에 圖像이 있어 붙여진 제목인데, 번역본에서는 이 도상부분이 빠져 있기에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은 그 내용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나, 목록에서 서로 다른 이름의 책으로 분류된 것이다.

고 있다. 또한 규장각본의 필체 역시 낙선재본 만큼이나 정성드려 필사한 것이기에 규장각본 자체가 이미 거의 완성본에 가까운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¹³⁾

규장각본의 수정부분은 본문의 필체와 다르며, 먹의 농도에 있어서도 본문보다 조금 얇아 본문의 필사자와 수정자는 동일인이 아니며, 수정은 일단 필사가 완결된 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특히 2권 6회의 마지막 부분에 수정자의 필체로 쓰여진 필사기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2권 6회의 마지막에 1줄이 비어 있는데 이곳에 수정자가 필사기를 기록한 것이다.

병술 삼월 초오일 시작이라

그렇다면 위의 필사기에서 병술년은 서기 몇년에 해당되는가가 문제이다. 그런데 규장각본에서 또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 책의 표지이다. 규장각본의 표지를 살펴보면 7책 모두 앞표지, 뒷표지 이면에 연활자로 인쇄된 내용이 보인다. 이는 연활자로 인쇄된 종이를 덧대어 표지를 만든 것이다. 그 덧대어진 종이에 인쇄된 것은 『한성순보』이다. 그 내용을 고찰해보면, 1886년 7월 5일에 발행된 「한성순보」 제23호와 동년 8월 23일 간행된 제24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가 최소한 1886년 8월 23일 이후임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위에서 인용된 필사기의 병술년은 成冊된 그 해인 1886년을 의미한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규장각본 <슈상요화전>의 청구기호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도서의 청구기호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奎 1>부터 <奎 19000>번대까지
- ② <奎 20000>번부터 <奎 끝번호>까지
- ③ <古 和漢書 분류번호>
- ④ <古 DDC 분류번호>

奎 다음에 붙는 숫자는 규장각에 수입순으로 붙인 것인데, <奎 19000>번대까지는 대개 조선시대부터 소장되어 있던 자료에 붙인 청구기호이다. 그리고 <奎 20000>번대는 일제시대 때 규장각에 수입된 도서에 붙인 것이며, 그 다음

13) 규장각본의 필체는 남필인 듯하며, 낙선재본은 궁체로 쓰여졌다.

에 和漢書 분류에 따라 번호를 붙인 것은 京城帝大 도서관에 보관되었던 고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古 DDC 분류>에 해당하는 서적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고서로 해방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규장각으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규장각본 <수상요화전>의 청구기호는 <奎 11472>이기에 조선 혹은 대한제국기에 규장각이나 왕실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규장각본 <수상요화전>에는 관보인 『한성순보』가 표지에 덧대어져 있으며, 원래 이 책이 궁중에 소장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요화전>은 고종의 명으로 중국소설을 번역할 때 만들어졌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규장각본 <수상요화전>은 1886년 이전에 만들어진 다음, 1886년 3월부터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1886년 8월 23일 이후에 成冊되었으며, 이러한 규장각본 <수상요화전>을 저본으로 그대로 베껴 쓴 것이 바로 낙선재본 <요화전>이다. 규장각본을 그대로 베껴쓴 것이 낙선재본이기는 하나, 낙선재본의 성책과정에서 규장각본과는 다르게 권을 나누고 책을 묶었기에 권수나 책수에 있어서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2.2 총렬소오의

<忠烈小五義>는 <三俠五義>의 연작으로, <三俠五義>는 ‘大五義’로 <忠烈小五義>는 ‘小五義’로 흔히 불리는데, <三俠五義>는 ‘忠烈俠義傳’이라는 제목으로 낙선재본에 번역되어 있다. <忠烈小五義>는 <三俠五義>의 저자인 石玉昆(1810~1871)의 원고를 토대로 민간전설과 講唱文學을 정리·편집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40회 정도는 <忠烈俠義傳>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다. 이 작품은 <忠烈俠義傳>의 주인공인 노방, 한평, 서경, 백옥당 등의 아들이나 조카인 盧珍, 韓天錦, 徐良, 芸生, 艾虎 등 다섯 사람이 결의 형제를 맺고 불의와 싸우며 俠行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채 작품이 끝나고 있다. 다음 이야기는 <續五義>라는 작품으로 이어지는데, <續五義>의 번역본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三部作 중 두 작품만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읽혔던 것으로 추측된다.¹⁴⁾

<忠烈小五義>는 回題 다음에 가끔 詩나 讚이 나오고 작품의 서사가 전개 되는데,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시나 찬이 번역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나 찬 외에도 가끔씩 장장문학적 성격으로 인해, 작품의 서사적 전개와는 관련이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관한 짧은 이야기, 곧 入話를 章回の 서두에 서술하고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入話를 따로 묶어서 附編을 만들어 놓고 있다. 예컨대 12회 서두에 작품의 서사적 전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漢 高祖 劉邦이 천하를 얻고, 잃은 까닭을 신하들에게 묻는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작품내에서 번역하지 않고, 부편에 따로 번역·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光緒16년(1890)에 北京文光樓에서 최초로 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上海申報館排印本, 光緒16年 善成堂刊本, 光緒32년(1906) 上海書局石印本 등이 있다.¹⁵⁾

한글 필사본 <충렬소오의>는 규장각과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2종이 있는데, 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충렬소오의 奎 7553 [編者未詳] [1890年(高宗 27) 以後] 30卷, 附篇 合 16冊, 落帙.
 [寫] 28.3×19.5cm. 筆寫面 : 24.7×16cm, 9行 19-21字.
 卷5-9, 12, 13, 15-21, 23, 25, 27-32, 附篇 卷首題 : 충렬소오의전.
 卷10, 11, 14, 22, 24, 26 卷首題 : 충렬소오의전
 表題 : 忠烈小五義 *國文本. 卷1,2(1冊)이 없는 落帙일.

충렬소오의 寫本(國文). 31冊. 28.2×18.6cm. 別名 : 忠烈小五義.
 原本所藏 : 韓國精神文化研究院(舊 藏書閣本). 4-6848¹⁶⁾

光緒 32년(1906) 上海書局石印本과 규장각본, 낙선재본의 장회와 권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14)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pp.758-759 참조.

15)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pp.758-759 참조.

16) 『한국고소설목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p.102-103

17) 『중국통속소설총목제요』에 나오는 회제와 박제연 교수의 박사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회제(小五義, 桂館圖書公社, 臺北, 1988) 중 제44회의 회제는 “假害怕哄信雷英 仗薰香捉拿彭啓”로, 제75회는 “丟人犯太爺心急驟”로 되어 있으나,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에서는 “복훈향착타평계 가히파홍신뇌영”, “휘츠스턱야심급

상해서국석인본	규장각본	낙선재본
	권1,2(1-10회) 1책(缺)	권1(1-5회) 1책
	권3(11-14회)	권2(6-10회) 2책
	권4(15-18회) 2책	권3(11-14회) 3책
권1(1-5회)	권5(19-22회)	권4(15-18회) 4책
권2(6-10회)	권6(23-26회) 3책	권5(19-22회) 5책
권3(11-15회)	권7(27-30회)	권6(23-26회) 6책
권4(16-20회)	권8(31-34회) 4책	권7(27-30회) 7책
권5(21-25회)	권9(35-37회)	권8(31-34회) 8책
권6(26-30회)	권10(38-40회) 5책	권9(35-37회) 9책
권7(31-35회)	권11(41-43회)	권10(38-40회) 10책
권8(36-40회)	권12(44-47회) 6책	권11(41-43회) 11책
권9(41-45회)	권13(48-51회)	권12(44-47회) 12책
권10(46-50회)	권14(52-55회) 7책	권13(48-51회) 13책
권11(51-55회)	권15(56-59회)	권14(52-55회) 14책
권12(56-60회)	권16(60-63회) 8책	권15(56-59회) 15책
권13(61-65회)	권17(64-68회)	권16(60-63회) 16책
권14(66-70회)	권18(69-73회) 9책	권17(64-68회) 17책
권15(71-75회)	권19(74-76회)	권18(69-73회) 18책
권16(76-80회)	권20(77-80회) 10책	권19(74-78회) 19책
권17(81-85회)	권21(81-84회)	권20(79-83회) 20책
권18(86-90회)	권22(85-88회) 11책	권21(84-87회) 21책
권19(91-95회)	권23(89-92회)	권22(88-91회) 22책
권20(96-100회)	권24(93-95회) 12책	권23(92-95회) 23책
권21(101-105회)	권25(96-100회)	권24(96-100회) 24책
권22(106-110회)	권26(101-103회) 13책	권25(101-104회) 25책
권23(111-115회)	권27(104-107회)	권26(105-108회) 26책
권24(116-120회)	권28(108-110회) 14책	권27(109-112회) 27책
권25(121-124회)	권29(111-114회)	권28(113-116회) 28책
	권30(115-117회) 15책	권29(117-119회) 29책
	권31(118-120회)	권30(120-124회) 30책
	권32(121-124회) 16책	부편 1책
	부편 1책	

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光緒32년(1906) 上海 廣白宋齋 石印本에서는 44회와 75회의 회제가 “伏薰香捉傘彭彭 假害怕哄信雷英”, “差差使太爺心急躁”로 되어 있어 규장각본 및 낙선재본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아직 1890년에 간행된 자료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한글번역본의 번역대본이 1906년에 상해에서 간행된 자료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왕실에서의 중국소설의 번역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얼마전까지도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종 모두 장회수는 같지만, 그 권 수나 책 수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을 비교해 볼 때, 18권까지는 그 분량이 일치하고 있지만, 19권부터는 차이가 있다. 또 책 수에 있어서는 규장각본은 제32권을 한 책으로 묶은 것을 제외하고는 각 2권을 묶어 1책을 만들고 있는데, 낙선재본은 1권을 1책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낙선재본의 책수가 규장각본의 거의 두배에 달하게 된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은 번역본의 초고인 듯 부분적으로 지우거나 수정한 부분이 보이는데 낙선재본 한글 필사본에는 규장각본의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규장각본의 수정부분 중 몇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 가는 길을 막는지라 쇠쥬야 → 가는 길을 막고 쇠쥬야 (권3 10면)
- 지나가지 못ㅎ다가 → 지나가지 못ㅎ게 ㅎ다가(권5 1면)
- 산셔안낙쥬권적인 → 산셔안약쥬관적인(57회 회제)
- 일ㄴ르니 → 일콧더니(권16 1면)
- 추시의 문득 드르미 → 추시의 위도스등이 문득 드르미(권31 2면)
- 형레훈 더 인히 앞출가 좁아 멈쥬며 → 형레훈 더 마롱이 의회를 좁아 멈쥬며(권32 1면)

위의 화살표 오른쪽이 수정된 내용인데, 이는 낙선재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로보건대 앞서 언급한 <요화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忠烈小五義> 역시 규장각본을 수정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베껴 써서 낙선재본을 만들었다 할 것이다.¹⁸⁾ 그런데 그 수정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앞절에서 언급한 <요화전>에서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규장각본은 男籊인 듯하고, 낙선재본은 이보다 더욱 정서된 궁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요화전>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처럼 규장각본에 비해서 낙선재본의 책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나, 규장각본의 수정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필체에 있어서 규장각본은 남필인 듯하고, 낙선재본은 궁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총렬소오의> 역시 <요화전>이 번역되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

18) 다만 규장각본의 경우에는 회제 밑에 回數(예컨대, 十一回)를 쓰고 있지만, 낙선재본에서는 이를 쓰지 않은 차이가 있다.

로 이루어 졌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총렬소오의>의 번역 대본인 중국의 원본은 앞서 언급했듯이 道光 16년(1890)에 최초로 간행된다. 이로 보건대, <총렬소오의>의 번역은 아무리 빨라도 1890년 이전은 될 수 없고 번역과 필사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이보다는 1-2년 뒤에야 낙선재본 <총렬소오의>가 만들어 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886년에 수정작업이 이루어진 <요화전>보다는 최소한 5년 정도는 뒤에 <총렬소오의>가 만들어 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2.3 진주탑

<진주탑>은 대개 명대 민간에서 유래하여 강담사들에 의해 정리된 彈詞 작품이다. 판본으로는 乾隆 46년(1781)에 나온 周殊士補本, 俞正峯本(1809), 周·陸編評本(1822) 세 가지 계통이 있는데, 이 가운데 周殊士補本이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중 주·륙편평본이 바로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의 번역 대본이다.¹⁹⁾

현재 국내에 전하고 있는 한글필사본은 규장각본과 낙선재본 2종이 있다. 이들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진주탑 奎11440, [編者未詳] [朝鮮後期] 13卷 5冊. [寫] 32.8×21.1cm. 筆寫面 : 30.5×18cm, 10行 22-24字. 表題 : 珍珠塔, *國文本

진주탑 寫本(國文). 10冊. 28.1×19.9cm. 別名 : 珍珠塔. 原本所藏 : 韓國精神文化研究院(舊 藏書閣本). 4-6845.²⁰⁾

주·륙편평본과 규장각본, 낙선재본의 강회와 권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 박재연, 진주탑 해제, 『진주탑』, 학교방, 1995, pp.1-8 참조.

20) 『한국고소설목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92

주·륙편평본	규장각본	낙선재본
권1(1-14회) 권2(15-28회) 권3(29-42회) 권4(43-56회)	권1(1-6회)	권1(1-6회) 1책 권2(7-11회) 2책 권3(12-17회) 3책 권4(18-22회) 4책 권5(23-27회) 5책 권6(28-32회) 6책 권7(33-37회) 7책 권8(38-44회) 8책 권9(45-50회) 9책 권10(51-56회) 10책
	권2(7-10회) 1책	
	권3(11-14회)	
	권4(15-19회)	
	권5(20-23회) 2책	
	권6(24-26회)	
	권7(27-30회)	
	권8(31-35회) 3책	
	권9(36-39회)	
	권10(40-44회) 4책	
	권11(45-48회)	
	권12(49-52회)	
	권13(53-56회) 5책	

중국의 원본에 비해서 한글 번역본의 경우는 권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리고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을 비교할 때, 앞의 <총렬소오의>의 예와 같이 권 수는 비록 규장각본이 많지만 전체 책 수에 있어서는 낙선재본이 2배이다. 이처럼 규장각본에서 낙선재본으로 갈수록 책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앞서 살핀 두 작품의 경우와 동일한 점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진주탑은 번역본의 초고인 듯 부분적으로 지우거나 수정한 부분이 보이는데 낙선재본 한글 필사본에는 규장각본의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규장각본의 수정부분 중 몇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 맛춤 부현의 쾌반 과일이 잇서 일좌 던장을 십팔냥 은즈의 팔미 → 맛춤 상부현의 쾌반 셔언이 쾌반 구실을 팔거늘 쥬이판이 일좌 던장을 십팔냥 은즈의 팔미(권1 3-4면)
- 무정호여 거긋 차스롤 → 무정호여 차스롤 (권1 18면)
- 맛당히 착실이 변통호여 → 맛당히 변통호여(권1 22면)

위의 화살표 오른쪽이 수정된 내용인데, 이는 낙선재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로보건대 앞서 언급한 두 작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주탑> 역시

규장각본을 수정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베껴 써서 낙선재본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정한 부분은 <총렬소오의>의 경우처럼 그리 썩 많지는 않다. 그리고 규장각본은 남필인 듯하고, 낙선재본은 이보다 더욱 정서된 궁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앞서 언급한 작품들과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규장각본을 수정하여 낙선재본을 만들었다는 점이나, 규장각본에 비하여 낙선재본이 정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낙선재본으로 갈수록 책 수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요화전>이나 <총렬소오의>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기에 <진주탑> 역시 <요화전>, <총렬소오의>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는 곧 가람이 언급한 1884년 경에 고종황제의 명으로 이종태 등 수십명의 문사가 중국소설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3. 白山黑水文庫 소재 중국번역소설과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규장각에 소장된 한글 필사본 <요화전>, <총렬소오의>, <진주탑> 등은 낙선재본을 만들기 전단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규장각본에서 낙선재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규장각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운문·수정하였으며, 글씨에 있어서도 더욱 정서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용에 있어서는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이 완전히 일치함에 불구하고, 그 권 수나 책 수는 변화하였다. 그 변화 내용을 정리해 보자.

책명	규장각본	낙선재본
요화전	14권 7책	22권 22책
총렬소오의	32권 16책 (부편 1책)	30권 30책 (부편 1책)
진주탑	13권 5책	10권 10책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규장각본에 비해서 낙선재본의 책 수가 증가하

고 있다. 그리고 낙선재본은 모두 1권을 1책으로 묶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로 보건대,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의 권 수의 차이는 낙선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당한 크기의 책을 만들기 위해 한 권의 분량을 조절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간행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권 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규장각본을 바탕으로 낙선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권 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권의 조절은 임의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권의 구별은 별반 의미를 띠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책 수를 주목할 때, 낙선재본은 모두 10책 이상의 장편인 특징이 있다.

그런데, 가람의 증언을 고려해 볼 때 19세기 말에 왕실의 명으로 시작된 중국소설 번역작업은 상당기간, 상당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현재 이 번역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앞의 살핀 세 작품 뿐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번역된 다른 작품들은 왜 앞서 살피본 규장각본과 같은 이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박재연 교수가 고어와 고문체 등을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1884년 경에 이종태 등의 문사가 번역한 작품으로 지목한 것은 다음과 같다.

包公演義(9책), 補紅樓夢(24책), 紅樓夢(120책)²¹, 紅樓夢補(24책), 紅樓復夢(50책), 後紅樓夢(20책), 快心篇(32책), 麟鳳韶(3책), 女仙外史(45책), 續紅樓夢(24책), 雪月梅傳(20책), 瑤華傳(22책), 忠烈小五義(30책), 珍珠塔(10책), 忠烈俠義傳(40책)²²

이상의 15종을 이종태 등의 문사가 번역한 작품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포공연의>와 <인봉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책이 넘는 작품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1884년 경에 이루어졌다는 중국소설번역 작업은 장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에 낙선재본 중국소설 번역본 중 10책 이상이 되는 작품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21) 낙선재본 <홍루몽>은 현재 3책이 빠져 모두 117책만 남아 있다.

22) 박재연,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박사논문, 1993.
박재연, 韓國所見中國通俗小說朝譯本書目, 『中國小說繪模本』, 1993, pp.265-281

唐秦演義(17책), 武穆王精忠錄(12책), 補紅樓夢(24책), 三國志通俗演義(39책), 西周演義(25책), 禪眞逸史(15책, 21책), 雪月梅傳(20책), 續紅樓夢(24책), 女仙外史(45책), 瑤華傳(22책), 再生緣傳(52책), 珍珠塔(10책), 忠烈小五義(30책), 忠烈俠義傳(40책), 快心篇(32책), 平山冷燕(10책), 紅樓夢(120책), 紅樓夢補(24책), 紅樓復夢(50책), 後紅樓夢(20책)

여기서 연의류에 해당하는 <당진연의>, <삼국지통속연의>, <서주연의>는 이미 오래전에 조선에 유입되어 읽히고 번역되었던 작품이다. 그리고 <무목왕정충록>의 경우 暎嬪 李氏의 인장이 찍혀 있기에 19세기 말에 번역된 작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4종의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이 19세기 말엽에 왕실의 명으로 번역된 작품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의 이본을 조사해 보면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바로 지금은 사라진 日本東京大學 白山黑水文庫에 소장되어 있던 소설 목록이 그것이다.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 중에 白山黑水文庫에도 소장되어 있던 작품의 목록과 책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책명	白山黑水文庫 소장본	낙선재본
홍루몽	60책	120책
속홍루몽	9책	24책
후홍루몽	10책	20책
홍루몽보	14책	24책
홍루부몽	25책	50책
보홍루몽	8책	24책
설월대진	10책	20책
여선외사	22책	45책
쾌심편	16책	32책

23)

23) 前閔恭作, 『鮮冊名題·文藝篇 下 俗文類』, 1936, 55장~56장 참조. 이종 <쾌심편>은 이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前閔恭作이 편한 『古鮮冊譜』에는 그 목록이 보이는데, 南滿鐵道會社에 소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동경제대 백산학수문고는 남만철도회사 조사부에서 수집한 책들이 이전된 것으로, 前閔恭作의 『鮮冊名題』를 작성할 당시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백산학수문고로 이전하는

白山黑水文庫에 소장된 책들은 원래 明治 末年에 南滿鐵道會社 調査部에서 수집한 것으로 동경제국대학에 옮겨 졌던 것이다.²⁴⁾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白山黑水文庫 소장 작품들과 낙선재본 작품들 사이의 나타나는 책 수의 변화이다. 낙선재본의 책수가 白山黑水文庫 소장본보다 거의 2배 혹은 3배 정도 많다는 점은 앞서 살핀 <요화전>, <충렬소오의>, <진주탑>의 경우와 일치한다. 또한 이들 작품 중 <홍루몽>을 제외하고는 다른 작품들의 경우에 이 본이라고는 낙선재본과 白山黑水文庫 소장본 외에 없다는 사실 역시 <요화전> 등의 예와 일치하는 것이다.²⁵⁾

관동대지진에 의해 白山黑水文庫가 모두 사라져 구체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이 목록을 비교해볼 때, 아마도 白山黑水文庫 소장본은 규장각본 <요화전>, <충렬소오의>, <진주탑>과 동일한 성격의 책이라 할 것이다. 단 한 종의 예외도 없이 낙선재본보다 1/2이나 1/3정도의 책 수를 보인다는 점, 특히 <홍루몽>, <후홍루몽>, <홍루부몽>, <설월매전>, <쾌심편>은 정확하게 낙선재본의 반에 해당된다는 점은 <진주탑>의 예와 동일하다. 이로 볼 때, 백산혹수본과 낙선재본의 관계는 앞서 살핀 3종의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곧 왕실의 명으로 19세기말 대대적인 중국소설 번역 작업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낙선재본의 전단계로 제작되어 수정본의 역할을 한 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들 중에서 이 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19세기말에 왕실의 명에 의해 제작된 것이 확실한 중국번역소설은 일련의 홍루몽계열 작품들과 <설월매전>, <여선외사>, <쾌심편>, <요화전>, <충렬소오의>, <진주탑>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내용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들 작품들이 동일한 유형으로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前間恭作, 『古鮮冊譜』 1, 1928, p.133)

24) 前間恭作, 『鮮冊名題例言』, 1936, 4장.

25) 한글 필사본 <홍루몽>은 낙선재본과 동경대학 백산혹수문고본을 제외하고 2종이 더 있다. 丁鳳泰 소장본과 경주시립도서관본이 그것인데, 각각 12책, 15책이다. <홍루몽>의 경우는 중국에서 워낙 인기있었던 작품이기에, 다른 낙선재본과는 달리 2종이 더 있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류이기에 서로 너무나 다른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이전에 번역된 중국소설은 거의 연의류였지만, 이 시기에는 장르를 불문하고 번역되었던 것 같다. 다만 이들 작품에 있어서 공통된 점은 모두 장편이라는 것이다. 최종 완성본인 낙선재본의 책 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 모든 작품이 10책 이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마도 중국소설의 번역에 있어서 철저히 장편만을 선택하여 번역작업을 진행했다고 여겨진다.²⁶⁾

4. 19세기말 중국소설번역의 소설사적 의미

중국소설의 향유는 이미 16세기 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宣祖實錄』에 의하면 <삼국지>, <초한연의> 등의 중국 연의소설들이 수입되어 읽히고 있었고,²⁷⁾ 許筠(1563-1618)은 <삼국지연의>, <오대잔당연의>, <수호지> 등 수십 종의 중국소설을 읽었으며²⁸⁾ 趙泰德의 <諺書西周演義跋>에는 여항의 부녀자들이 <서주연의>를 돌려보는 상황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²⁹⁾ 이처럼 연의류를 중심으로 중국소설은 16세기에서부터 국내에서 향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연의류 외에 중국장편소설의 향유는 별반 드러나지 않는다. 선조가 貞淑翁主에게 보낸 국문편지에서 <包公案>이 언급되고 있고³⁰⁾ 홍희복(1794-1859)이 <鏡花緣>을 <第一奇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사실 등 몇몇 사실을 제외하고는 연의류가 아닌 중국장편소설이 향유된 흔적이 19세

26) 박재연 교수가 1884년 경에 이종태 등의 문사가 번역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작품들 중 <포공연의>와 <인봉소>는 이 번역작업 중에 이루어진 작품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들 작품은 모두 10책 이하의 작품으로 <포공연의>는 이미 오래 전에 읽힌 기록이 남아 있고, <인봉소>는 단지 3책에 불과하며, 이 두 작품은 다른 작품들처럼 수정본의 성격을 띤 이본이 남아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왕실의 후원으로 진행된 번역사업이 수십명의 문사가 동원된 대대적인 작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때에 번역된 작품은 모두 장편이었을 것이다.

27) 『宣祖實錄』, 선조 2년 6월조 참조.

28) 許筠, <西遊錄跋>, 『惺所覆瓿』 卷13.

29) 趙泰德, <諺書西周演義跋>, 『謙齋集』 卷42.

30) 김일근, 『언간의 연구』, 건국대출판부, 1986, p.184

기 중반까지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장편의 중국소설들이 19세기 말 왕실의 후원으로 대거 번역될 수 있었을까? 이미 19세기말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중국통속소설이 대거 번역되었던 이유는 우리 소설사에 있어서 해명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장편소설사와의 관계에서 고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로 번역·필사된 중국장편소설의 향유층이 장편소설의 향유층과 일치한다고 볼 때, 우리의 장편소설사의 전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장편소설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장편소설의 형성이나 전개, 쇠퇴 등에 대해 소설사적 안목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아직 장편소설의 역사를 재구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실정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장편소설의 쇠퇴의 지점에 대해서는 개론적인 수준의 언급만이 있을 뿐, 정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정병설 교수가 장편소설사의 전개에 대한 짧은 논문을 제출하여 관심을 끈다.³¹⁾ 정병설 교수의 논의 중 특히 19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목된다.

정 교수는 쿠랑과 최남선의 조사를 통해 세책가가 1890년 경에 회귀해졌다가 1910년대에는 거의 한곳 남짓이나 남을 정도였다는 점과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의 분석을 통해 19세기 초·중반에 이미 장편소설의 상투성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1860년 이후 잇따른 양요와 개항, 국내적인 혼란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장편소설은 19세기 전반부터 쇠퇴를 시작하여 1860년 경에 그 쇠퇴가 급히 이루어지다가, 1920년 경에 거의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고 있다.³²⁾

이러한 장편소설사의 전개의 상황을 볼 때, 19세기말 장편소설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왜 장편의 중국통속소설이 대거 번역되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장편소설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가던 시점에 어떻

31) 정병설,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32) 정병설, 앞의 논문, pp.252-262

게 대대적인 장편 중국통속소설의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는 해명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왕실의 후원으로 왕실에서 읽히기 위해 장편소설이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장편 중국통속소설들의 독자는 바로 왕족 특히 왕실의 여인들이었다. 이들 왕실의 인물들은 타 계층의 사람들과는 다른 성격을 띠는 집단이다. 이들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며 문화적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왕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편소설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윤백영 노파의 증언에 의하면, “이조말에는 내전에 문학열이 선풍적”이어서 “왕비들이 소설을 즐겨 목청 고운 지밀나인은 중전을 모시고 소설을 읽는게 일”이었다 한다. 특히 “순조비 純元肅皇后 김씨나 철종비 哲仁肅皇后 김씨는 유독 문필을 좋아하여 손수 읽고 쓰는 예가 많았다”고 하니 순조비(1789-1857)나 철종비(1837-1878)가 살았던 19세기 중·후반까지도 왕실에는 엄청난 독서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들 주변의 왕실 인물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할 것이다. 현종의 딸인 德溫公主가 시집을 때 많은 책을 가지고 온 사실이나, 덕온공주의 손녀인 윤백영 노파 역시 왕실의 인척으로 당시(1966년)까지 거의 매일 장서각을 드나들며 낙선재본 소설을 읽고 있었다는 점 등은 왕실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장편소설에 대한 욕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³³⁾

이처럼 왕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장편소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공급은 장편소설의 쇠퇴와 맞물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백영 노파의 증언에 의하면 장편소설은 세책가를 통하여 왕실에 흘러 들어온다고 하였다. 하지만 쿠랑의 증언대로 1890년 대에는 이미 세책가가 희귀해진 상황이니 이보다 훨씬 전에 왕실로의 장편소설의 공급은 막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왕실에서 장편소설의 수요는 존재하나, 더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대대적인 중국통속소설 번역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19세기말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중국장편소설의 번역 작업은 우리 장편소설

33) 중앙일보, 1966년 8월 25일 5면.

의 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왕실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장편소설의 생산 작업은 역으로 이미 장편소설이 쇠퇴·소멸하고 있는 상황을 증거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장르는 그 나름의 규범 혹은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규범 혹은 관습은 작품 내적인 의미에서 뿐 아니라, 독자층과 그것이 향유되는 문화공간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장르가 변화·발전하는 과정은 바로 그 규범·관습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장편소설의 역사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16세기에서부터 변화·발전의 과정을 거치다가, 19세기에 들어서 쇠퇴가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하나의 역사적 장르가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나름의 새로운 시도가 장르 내부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소설의 번역 작업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이미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는 장편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기존의 주요한 향유층의 하나인 왕실에서 새로운 시도로서 중국장편소설을 대거 번역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장편소설 독자층의 유지·확산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으며, 우리 장편소설에 새로운 자양분으로 작용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장르사에 관점에서 볼 때, 장편소설의 쇠퇴·소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5. 결 론

이상으로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의 초고본의 성격을 띠고 있는 3종의 규장각 소장본을 논의의 단서로 19세기말에 진행된 중국소설 번역 작업의 과정, 방법, 시기 등을 고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대상 작품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19세기말에 진행된 중국소설번역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구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규장각에 소장된 <요화전>, <충렬소오의>, <진주담>은 낙선재본 <요

화전>, <총렬소오의>, <진주탑>의 초고본으로, 규장각본 <요화전>의 필사기와 <요화전> 표지에 인쇄된 한성순보로 볼 때, 규장각본 <요화전>은 1886년 3월부터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1886년 8월 23일 이후에 成冊되었다. 그리고 낙선재본 <요화전>은 이를 그대로 베껴 써서 만들어진 것이다.

<총렬소오의>는 원본이 1890년에 최초로 중국에서 간행되었기에, 한글필사본 <총렬소오의>는 189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볼때, 19세기말에 왕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중국소설 번역작업은 최소한 1886년부터 1890년경 사이에는 확실히 이루어 졌다. 번역이나 필사에 걸린 시간을 감안한다면 1880년대 중반에서 부터 1890년대 초반까지는 번역작업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2) 번역은 초벌 번역이 끝난 다음, 거의 완성본에 가까운 형태로 책을 만들고, 이에 대해 부분적인 윤문을 통해 낙선재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거의 완성본에 가까운 초벌 번역에서 낙선재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변화는 없지만, 권 수와 책 수가 변화하는데, 책 수는 거의 2배 혹은 3배 정도가 늘어났다.

(3) 일본 동경대학 白山黑水文庫에 소장되었던 한글필사본 소설목록을 살펴볼 때, 낙선재본의 초고본이라 여겨지는 작품으로 <補紅樓夢>, <靄月梅傳>, <續紅樓夢>, <女仙外史>, <快心篇>, <紅樓夢>, <紅樓夢補>, <紅樓復夢>, <後紅樓夢> 등이 있다. 이로 보건대, 왕실의 후원으로 19세기 말에 번역된 중국소설 중 그 이본 등을 통해 확인 되는 작품은 <補紅樓夢>, <靄月梅傳>, <續紅樓夢>, <女仙外史>, <快心篇>, <紅樓夢>, <紅樓夢補>, <紅樓復夢>, <後紅樓夢>, <瑤華傳>, <忠烈小五義>, <珍珠塔> 등 12종으로 모두 10책 이상의 장편들이다.

(4) 19세기 말에 장편의 중국소설이 번역된 이유는 왕실에는 여전히 장편 소설의 수요가 존재하였으나, 우리 장편소설의 쇠퇴로 더 이상의 국내장편소설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장르사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장르의 소멸시점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장르 운동이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중국소설의 번역을 살피는 가운데, 많은

중국의 장편통속소설 중에 유독 위의 작품들이 번역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소설사에서 가지는 위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못했다. 이는 분명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Novels and the History of Korean Long Length Novels

Ryu Jun-Kyong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novels in 19th century. The translations in Gyujanggak奎章閣 are the drafts for those in Naksunjae樂善齋, though which we can survey when and how the translations were made, and what their purpose, method and effects are.

(1) The Gyujanggak translations which are certified as the drafts for Naksunjae translations— *Yohwajeon*『瑤華傳』, *Chungyeolsoheui*『忠烈小五義』, *Jinjutab*『珍珠塔』— were made mainly in the mid 1880's through the early 1890's. It means that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novels were widespread at those times.

(2) The Naksunjae translations are based on the Gyujanggak ones. Gyujanggak translations are completed in the form of books, and the main narratives are mapped enough, but the volumes of Naksunjae translations are much bigger.

(3) In the Siroyamakuromitsu白山黑水 library of Tokyo university, there are nine novels which are supposed to be the drafts of Naksunjae translations. They are *Bohongrumong*『補紅樓夢』, *Seolwoimaejeon*『雪月梅傳』, *Sokhongrumong*『續紅樓夢』, *Yeoseonoesa*『女仙外史』, *Kwaesimpyeon*『快心篇』, *Hongrumong*『紅樓夢』, *Hongrumongbo*『紅樓夢補』, *Hongrubumong*『紅樓復夢』, *Huhongrumong*『後紅樓夢』, then the total number of the drafts for Naksunjae translations is 12. All of them are over ten volumed novels.

(4) The royal family's need for many volumed novels existed, but the

creation of such novels was impossible in the 19th Korea. The creation impetus for long length novels already ended, then Chinese novels were translated as the substitutes. It was the last movement of the literary phenomena of long length novels.